



미 증시, 금리 부담 지속 등으로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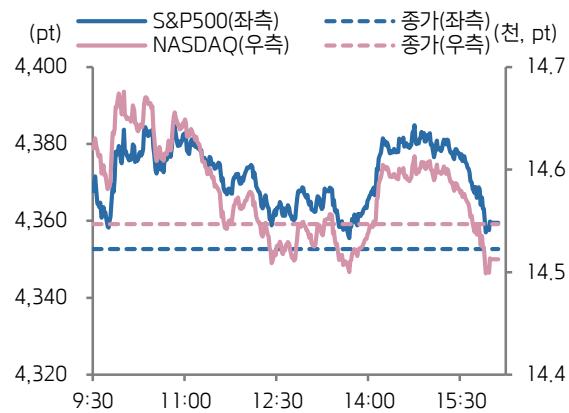
30 일 (수) 미국 증시는 금리 상승이 진정되면서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며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으나, 미국 장기물 금리는 여전히 1.5%를 상회했다는 점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. 전일 엘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과 다음날 30 일 (목) 하원 증언 사이 공백, 그리고 1 일 (금) 자정 미국 정부 셧다운 불확실성을 앞두고 관망세도 나타남. S&P500 지수는 장 초반 0.4% 상승 출발 이후 제한된 거래량 속에서 장중 0.1~0.7%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(S&P500 +0.16%, 나스닥 -0.24%, 다우 +0.26%).

업종별로 경기소비재, 유ти리티, 부동산, 헬스케어 등이 상승한 반면, 소재, IT, 커뮤니케이션스는 하락. 특히 반도체 섹터는 전일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실망으로 하반기 업황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1.5% 하락.

미국 10 년물 금리는 금일 아시아 증시에서 1.56%까지 추가 상승을 보인 후 미국 증시에서 1.5% 초반대로 하락. VIX 지수는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반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 일부 완화되었지만 달러화 0.6% 강세를 보이며 여전히 경계심리가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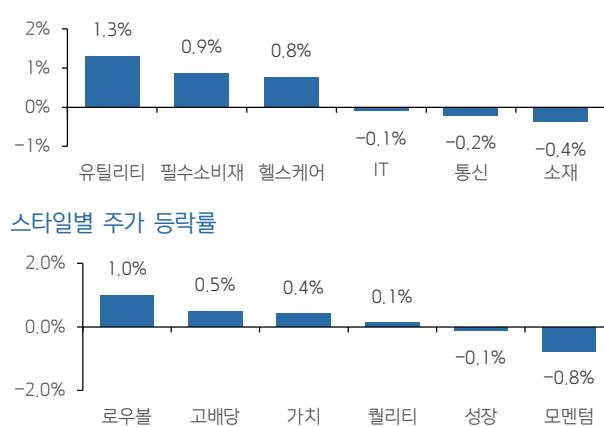
한편 ECB 의 포럼에서 파월 의장, 라가르드 총재, 구로다 BOJ 총재, 베일리 BOE 총재 등 발언들이 있었음.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 통화국 총재들을 서로 정책 사이클 위치가 다름을 재확인. 연준과 BOE는 다소 매파적, ECB 와 BOJ 는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표명. 4 명 모두 합의한 점은 단기적으로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점과 코로나로 인한 생산 병목 현상은 예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음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특징주

보잉(+3.2%): 보잉 737 맥스 중국 시범 비행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에 상승. 이에 따라 2년 운행 금지령은 올해 11월 철회될 기대감 확대. 추가적으로 벤스타인은 글로벌 여행이 변곡점에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의견을 증립에서 아웃퍼퓸으로 상향.

달러트리(+16.5%): 특정 상품들의 가격을 1.25~1.50 달러로 인상과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확대 발표에 힘입어 주가 급등.

マイ크론 테크놀러지(-2.0%): 다음 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을 가리키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. 가이던스는 EPS 2.0~2.2 달러, 매출 74.5~78.5 억 달러를 제시, 예상 예상치는 EPS 2.53 달러와 매출 85.4 억 달러였음.

제너락(-4.4%): 발전기 제조업체는 수요일 투자자의 날을 맞아 2024년 가이던스를 업데이트. 마진 목표를 24~25%로 제시하면서 컨센서스였던 26.9%를 하회.

루시드 모터스(+7.1%): 올해 10월 말 첫 럭셔리 전기차 세단들을 배송할 것이라는 발표에 주가 급등. 루시드는 이번주 초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함.

넷플릭스(+2.6%): 비디오게임업체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상승. 추가적으로 키방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컨텐츠로 구독자들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오버웨잇 투자의견을 유지.

일라이릴리(+4.0%): 씨티그룹은 투자의견을 증립에서 매수로의 업그레이드. 씨티는 8월 고점 이후 매력적인 가격 레인지에 진입과 또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실적 개선 드라이버가 될 것이라면서 상승 여력 20% 이상 제시.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	
S&P500	4,359.46	+0.16%	USD/KRW	1,182.04	-0.22%	
NASDAQ	14,512.44	-0.24%	달러 지수	94.38	+0.66%	
다우	34,390.72	+0.26%	EUR/USD	1.16	+0%	
VIX	22.56	-2.97%	USD/CNH	6.48	+0.01%	
러셀 2000	2,225.31	-0.2%	USD/JPY	111.96	+0%	
필라. 반도체	3,263.84	-1.53%	채권시장			
다우 운송	14,243.49	-0.54%	국고채 3년	1.590	-3.2bp	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202	-6.5bp	
Eurostoxx50	4,080.22	+0.53%	미국 국채 2년	0.289	-1.2bp	
MSCI 전세계 지수	715.46	-1.85%	미국 국채 10년	1.517	-2.1bp	
MSCI DM 지수	3,032.70	-2.03%	원자재 시장			
MSCI EM 지수	1,260.89	-0.51%	WTI	74.63	-0.88%	
MSCI 한국 ETF	80.06	-1.16%	금	1726.3	-0.64%	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16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93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1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188.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- 최근 2거래일간 급락에 따른 저점 및 기술적 매수세 유입 여부
- 미국 금리 급등 사태로 주가하락세가 심했던 성장주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
- 장중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 결과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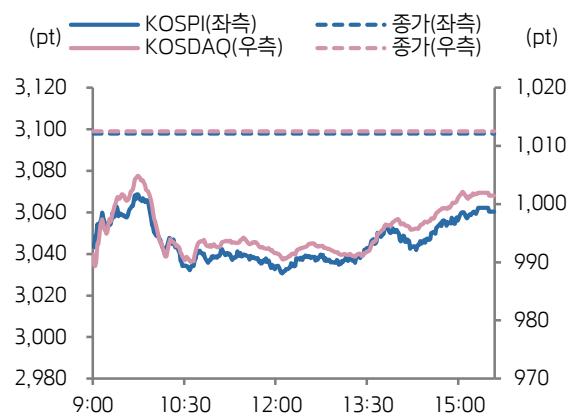
현재 증시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지난 2~3 월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방향성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. 9 월 FOMC 이후 테이퍼링 이슈는 상당부분 소화해냈으나, 시장참여자들은 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확대를 근거로 조기 금리인상 우려를 금리에 반영하고 있음. 이에 더해 10 월 18 일 이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미국 디폴트 가능성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금리 급등세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.

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5 월 이후 4 개월 연속 5%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, 시간이 지날수록 일시적 고 인플레이션이 아닌 추세적인 고 인플레이션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. 29 일 파월의장도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증거가 나타날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. 다만 파월의장이 부연 설명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, 경제 주체들의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상향 편의가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국제유가,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주 중반 이후로 진정되고 있다는 점도 안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.

연방정부 셧다운 및 디폴트 이슈의 경우, 29 일 상원에서 12 월 초까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. 합의 실패에도 셧다운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있었던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,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인한 10 월 18 일 디폴트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. 현재 초단기물 T-bill 선물 만기 10 월 19 일물은 9 월 이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, 12 월 2 일물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채권시장에서도 디폴트 가능성은 낮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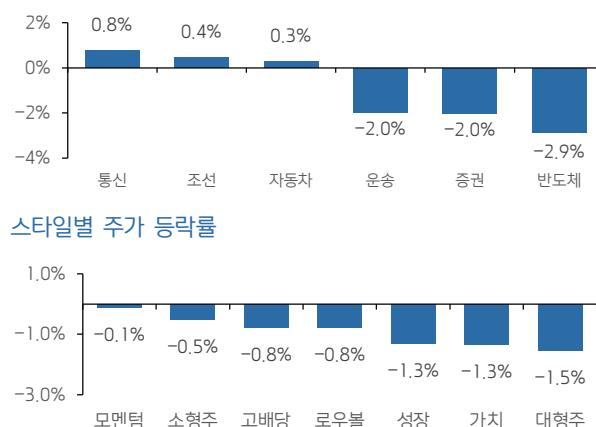
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면, 금일 한국 증시는 최근 2 거래일 연속 급락세가 과도했다는 인식으로 대형주 및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점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. 미국발 금리 급등세가 단기간에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, 금주 중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이슈였음을 감안 시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급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